

금호, 합성수지 연구소 대상에 매각

현금유동성 확보 위해 ... 저수익자산 처분 등으로 구조조정 촉진할 듯

금호석유화학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합성수지 연구소 건물 및 부지를 81억 원을 받고 대상에 팔았다.

매각대상은 토지 약 4100평과 3층 규모 건물 3개동으로, 매각대금은 계약일을 포함해 3회에 걸쳐 2003년 7월 말까지 모두 회수돼 전액 차입금 상환에 쓰일 계획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이천 연구소에 있던 연구 인력과 설비를 대전 대덕 소재 금호화학연구소로 옮기도록 해 기초연구 부문의 통합효과 창출과 고무 및 수지 부문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에 따르면, 연구소를 비롯해 과거 2년 동안 공장 사택 및 관련부지, 미활용 부동산 등 총 46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팔아 현금유동성을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저수익 자산 매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등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Chemical Journal 2003/05/09>